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연설문 네트워크 분석: 단어의 가시성(visibility)과 단어 간 연결성(connectivity)을 중심으로

Presidential Candidate's Speech based on Network Analysis :
Mainly on the Visibility of the Words and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Words

홍주현*, 윤해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MBC 편성국**

Ju-Hyun Hong(joohssy@kookmin.ac.kr)*, Hae-Jin Yun(yunhaejin@gmail.com)**

요약

이 연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연설문·담화를 네트워크 관점에서 접근해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연설문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설문·담화에서 언급된 단어의 가시성(visibility)과 단어 간 연결성(connectivity)을 살펴보았다. 단어의 가시성은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 하는지로, 단어 간 연결성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설문에 언급된 단어 간 상호작용을 그래프로 나타내 파악하였다. 박 후보의 경우 '국민행복'과 '약속'이 핵심 키워드로, 문 후보의 경우 '정권교체'와 '한반도', 안 후보의 경우 '국민'과 '변화'가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어떤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었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단어 간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의 경우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행복, 신뢰가, 문 후보의 경우 대한민국, 보통사람, 국민, 정권교체가, 안 후보의 경우 국민, 정치, 변화가 단어들 간의 관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단어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에 내재된 의미를 실증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 후보자의 연설문·담화에 대한 단어 간 연결성을 구조적 측면에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 중심어 : | 후보자 연설문 | 정치 담론 | 대통령 선거 | 네트워크 분석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olitical meaning of candidate's speech and statement who run for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viewpoint of communication. The visibility of the words and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words are analyzed in the viewpoint of structural aspect and the vision, policy. The visibility of the words is analyzed based on the frequency of the words mentioned in the speech or the statement.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words are analyzed based on the network analysis and expressed by graph.

In the case of candidate Park, the key word is the happiness of the people and appointment. The key word for candidate Moon is regime change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key word for candidate Ahn is the people and change.

This study contributes positively to the study of candidate's discourse in the viewpoint of methodology by using network analysis and exploring scientifically the connectivity of the words. In the theoretical aspect this study uses the results of network analysis for revealing what is the leadership components in the speech and the state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extension of the communication studies.

■ keyword : | candidate's Speech | Political Discourse | Presidential Election | Network Analysis |

I. 서론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기 다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갖고 있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가 특유의 화법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이들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보다도 친근감, 친 서민 행보를 강조하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준비된 후보로서 정책 중심의 선거 운동을 펼쳤으며,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친노’ 프레임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치 혁신을 요구하면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 되었을 때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과 같이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 대국민 연설, 담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국민들은 후보자가 한 말이나 연설문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설문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대상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 철학, 가치관 등을 전달하므로[1] 대통령, 정치인의 연설문은 집권 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그들의 정치적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2]. 뿐만 아니라 연설을 통해 형성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대통령이 된 후 국정 of 최고 집행자로서 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리더십은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데, 정보원으로서 정치 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추종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으로서 연설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과연 유권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자신의 정책이나 가치를 담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 연설이나 담화를 통해 이들이 강조

한 정책 방향이나 가치가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차별화되는지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정치인의 연설문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통령의 정치 담론을 분석한 시도는 있었지만 주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4]. 강정인이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 분석을 통해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분석한 연구가 있고[5], 이귀혜, 강남준, 이종영이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언어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대통령의 언어 사용을 통한 심리상태를 파악한 바 있다[6].

연설문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의미 분석, 수사학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이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언어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의 연설문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선행 연구 중 대통령 후보자의 연설문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로 박성희의 연구가 있다[7]. 대선 후보 출마 연설문에 나타난 ‘단어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박 후보의 경우 ‘국민, 당원, 당원동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 국가주의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의 경우 ‘시대, 문(門), 변화’를 강조했으며, 안 후보의 경우 ‘정치, 국민, 선거’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을 출마 선언문에 한정해 대통령 후보자의 정치 철학이나 정책 방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행정학 분야에서 이창길은 대통령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초기에 정권의 가치지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시도를 하였다[8]. 이러한 연구들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자들이 사용한 언어의 연결 구조분석을 통해 그들이 전달하고자 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이창길(2010)의 연구와 같은 관점에서 18대 대통령 후보자의 연설문과 담화를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단어들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연설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의 연설문에 자주 사용된 단어를 분석하고, 단어들 간의 연결을 통해 이들이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밝힐 것이다.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단어 간 관련성을

과약해 연설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내재된 정치적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연설문에서 단어의 선택은 연설자의 정책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9] 대통령 후보자들이 자주 사용한 단어를 통해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단어에 내재된 의미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의미 분석과 달리 단어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후보자들의 연설문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다. 단어에 내재된 의미 분석이 연설문 분석에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지만, 네트워크 분석은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단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전달자가 강조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 있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나 후보자들의 연설문 평가 및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등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의 연설문, 담화에 사용된 단어 간의 관계를 밝히고, 연설문, 담화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연설문, 담화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은 정보원의 정치 철학이나 정책을 알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1 정치 담론으로서 대통령 연설문의 역할

정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대통령의 정치 담론에 주목한 학자들은 대통령, 정치인의 정치적 연설을 통해 그들의 수사학적 전략, 정치적 목표를 알 수 있으며, 정책 집행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할지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9]. 대통령의 말, 연설이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으로 인해 대통령 수사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을 정도이다[10]. 이런 점에서 정치담론 분석(PDA,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이론은 대통령 후보자 또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파악하기 위한 유용

한 방법의 하나로 선호된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렵던 시기에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라디오를 통해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노변담화(fireside chat)처럼 정치 지도자의 말은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도 있고, 국가 간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정치 담론에 주목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설문에 내재된 정치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정치담론 분석은 연설문에 사용된 언어에 주목하는데, 텍스트와 대화에 내재된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가 당시의 정치·문화적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관 지어 해석한다[11]. 구체적으로 연설문에 사용된 정치적 개념이나 단어가 대통령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됐는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다차원적 접근을 한다. 정치담론 분석은 연설문에 사용된 언어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실용적 측면(pragmatics)과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미론 측면(semantics),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의미 있게 배열되었는지 구문론 측면(syntax)의 세 층위로 구분하여 연설문을 분석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언어는 통치자의 정치적 의지를 구체화하고 정치적 행위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푸는 정치 담론을 분석할 때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담론에 내재된 사회, 정치적 근간을 파악하고, 언어적 분석과 정치적 분석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12]. 그는 2002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중국 칭화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정치 담론의 관점에서 분석했는데, 부시 대통령의 수사학적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당시 미국에 비해 뒤쳐진 중국의 발전 모델로 미국을 상정하고, 미국주의의 건설과 같은 미국적 가치를 중국에 전달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나타

냈다고 해석했다.

우리나라에서 강정인도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과 담화 분석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의지와 민주주의 담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했다[13].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시기를 군정단계, 제3공화국, 유신체제로 구분하고, 권위주의 정권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제시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근대화 명분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생산해냈다고 주장한다. 즉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반공이 필요하고, 서구 민주주의와는 다른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 번의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자신이 주창한 한국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자들은 대통령의 정치 담론이 단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14].

나아가 에델만은 정치 담론이 정치 과정에서 발생할 법안 혹은 추진되는 행위와 정책들을 제시하고, 미래에 어떤 행위들이 금지되고, 어떤 행위들이 바람직한지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15]. 푸도 같은 맥락에서 연설문이 작성된 전후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는 등 거시적 맥락에서 연설문에 사용된 특정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16]. 권향원, 최도람은 대통령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역대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에 나타난 언어적 상징전략을 분석하였다[17].

이 연구는 이와 같이 대통령 정치 담론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고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연설문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내용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후보자들의 담화, 연설문 분석을 통해 과연 후보자들이 스스로 강조한 정치적 가치가 드러나는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이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학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정치 담론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과 가치, 내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나

이 연구는 후보자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간 거리를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설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비교할 것이다.

1.2 단어의 가시성(visibility)과 단어 간 연결성(connectivity)을 중심으로 살펴본 대통령의 연설문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언어는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자, 정치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정치담론 분석의 관점에서는 연설문에 내재된 수사학적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수준을 달리하여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 표현을 분석하였다[18]. 우리나라에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대통령, 정치인의 연설문에 대한 연구도 최근 활발하다[19]. 다양한 형태의 소셜 미디어에서 2012년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엔트로피의 증가가 선거 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박의 연구¹와 대통령 후보자의 이슈 소유권(issue ownership)과 트위터에서 이슈 확산 네트워크의 관계를 분석한 홍주현의 연구가 있지만[20] 이 두 연구는 연설문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연설문을 네트워크 분석한 연구로는 박성희(2009)가 주요 단어를 추출해서 단어들 간의 관계를 통해 대통령 후보자가 지향하는 정책, 정치관을 도출하였다.

본래 네트워크 분석은 개인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결(link)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21]. 사회적 상호작용을 사회적 연결(links)을 통해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연결 관계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의미론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의미론적 해석은 사회적 연결점 간의 빈도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얼마나 응집되는지 등 상호작용이 나타내는 표상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스테이버스와 테넬바움은 노드(node, 점)와 노드의 연결 형태에 따라 의미의 연결 구조를 구조화된 위계 트리, 비구조화 된 그래프, 중심부에 있는 몇몇 노드가 주변부의 노드가 연결되어 확산

1 이 연구는 문재인 후보보다 박근혜 후보에 대해 부정적 엔트로피가 많게 나타난 구글을 예로 들면서 부정적 엔트로피와 선거 결과가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된 모양의 그래프로 구분하였다[22]. 구조화된 위계 트리는 몇 개의 노드가 연결되어 있고, 각 노드를 중심으로 세부 의미들이 연결되어 나무 모양을 띤 것이다. 비구조화 된 그래프는 노드와 노드가 상호 연결되면서 별 집 모양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다. 끝으로 확산된 모양의 그래프는 중심부 노드와 주변부 노드 간에는 상호작용이 발생하지만, 주변부 노드 간에는 상호작용은 활발하지 않은 양상을 띤 것이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시한 상호작용을 웹에서의 상호작용에 적용시켜 온라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파악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의 무수한 정보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집합적 지식을 체계화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23]. 단어에 대한 공유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밝히는 의미론적 접근은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박성희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연설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20개를 추출한 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박 후보의 경우 국민과 당원 동지 일체화를, 문 후보의 경우 시대 변화의 문을 강조한다는 것을, 안 후보의 경우 정치에 메시지를 중시했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의 화법 분석을 통해서 박 후보의 경우는 직접 지지 호소를, 문 후보는 은유적 수사를, 안 후보는 간접한 화법을 사용했다고 했다. 대통령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이창길은 특정 단어가 동시에 발생하는 빈도를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측정함으로써 주요 단어들 간의 결집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는 단어의 빈도와 연결 구조 분석을 통해 참여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책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의 연설문이나 담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이 연설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자주 선택하는지, 선택한 단어들 간의 관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조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정치인들은 연설문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정책 방향을 나타내려고 할 것이므로 연설문에서 특정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그 단어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특정 단어가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단어의 가시성(visibility)에 주목하였다. 저널리즘 분야에서 가시성 개념은 언론에서 특정 집단이나 인물, 사건을 얼마나 두드러지게 자주 보도하는지 뉴스가치와 관련해 사용된 개념이다[24]. 언론의 뉴스가치에 의해 집단별로 매체 가시성(media visibility)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 매체 가시성이 수용자의 특정 집단이나 인물, 사건에 대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연구한다.

이 연구에서 단어의 가시성은 연설문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글투어와 자오는 전자 게시판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언급한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25]. 그들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 간의 유사성(similarity) 분석을 통해 자주 사용된 단어를 추출하였고, 이 단어들 간의 상호작용성, 거리를 분석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연설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이와 같이 어떤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단어의 가시성에 주목하였다.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면 단어의 가시성 외에 후보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단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네트워크를 이루는 노드(node, 점)와 노드(node)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 연결(link)로 나타내고,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특정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노드와 노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분석한다[26]. 이 연구는 연설문에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사용된 단어들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어의 연결성(connectivity)에 주목하였다.

단어의 연결성은 여러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 단어의 연결성은 전체 연설문에서 특정 단어가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지 단어 간의 연결 구조를 의미한다. 다음에는 단어 네트워크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결집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즉 단어가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주변부에 위치해 있는

지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치를 파악한다. 네트워크에서 특정 단어가 중심에 위치해 있다면 다른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자리에 위치할 경우 다른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통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중심성(centrality)을 살펴보았다.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에서 자주 언급되고 함께 등장하는 정도가 높은 단어로서 단어들 간의 관계 속에서 중요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빈도를 의미하는 매체 가시성과는 구분된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인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으로 중심성을 측정한다[27].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단어와 얼마나 활발하게 연결되는지를 의미한다. 인접 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쉽게 다른 단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거리가 짧을 경우 인접 중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세 중심성은 전체 구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를 알려준다. 이와 같이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각각의 단어들이 전체 연설문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밝히고, 단어들 간의 연결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특정 정치인,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의 가시성, 단어 간 연결성 분석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가 강조한 것, 후보자의 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네트워크 관점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살펴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음에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밝혀진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1.3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연설문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의 의미

대통령의 연설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의 정치 철학, 정책 방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유권자 간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통령의 연설에서 자주 언급하는 단어를 통해 어떤 정책을 중시하는지, 특정

정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통치자의 의중을 알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흐름과 내용을 의미론적 사회 네트워크 관점에서 고찰한 글루어와 자오는 특정 주제에 대해 어떤 내용이 토론되었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 행위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28].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단어와 단어 간의 연결을 통해 정보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내용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생각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17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다음’에 게시된 포털 댓글을 KrKwic와 K-LIWC²를 이용해 분석한 박한우와 이연옥은 수만 건의 댓글에 대한 내용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체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댓글의 의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29].

이 연구는 미디어 가시성(visibility) 개념을 연설문 분석에 적용시켜 특정 단어가 얼마나 빈번하게 노출되는지 고찰하였다. 연설문에서 특정 단어의 가시성이 높다면,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을 전달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사이트 같이 단문의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트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단어가 얼마나 많이 언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당시 논란이 되는 이슈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많이 언급될수록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가정한다[30].

다음으로 이 연구는 단어 간 연결성을 밝힘으로써 대통령 혹은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단어 간 연결성은 단어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떤 연결 구조를 나타내는지 의미한다. 김준식 외 학자들은 전체 문서에서 두 단어 간의 연결 상태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 단어 간 다양성과 긴밀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들은 단어 간 긴밀성 분석을 통해 단어 간의 연관성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볼 수 있고, 단어 간 다양성 분석을 통해 특정 단어와 관련해 얼마나 다양한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² 이것은 한글 텍스트 분석 소프트웨어로 어휘별 출현 빈도뿐만 아니라 어떤 어휘와 자주 결합하는지 알아보는 데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하였다[31]. 이 연구에서 단어의 연결성은 특정 단어가 얼마나 많은 다른 단어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된 노드, 즉 단어의 특징은 무엇인지 상호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개념이다.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밝힘으로써 후보자의 정책, 후보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32].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 중 가시성이 높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특정 단어와 연결된 단어의 종류를 주제별로 구분해서 보는 상호작용적 접근을 한다면, 대통령 혹은 후보자가 중시하는 지배적인 정책, 정치 철학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어의 가시성이 높고, 단어 간 연결성이 높을수록 그 단어는 대통령의 정책을 가장 잘 나타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수사학적 접근이나 텍스트 분석을 통해 통치자의 정책이 무엇인지 밝히는 학문 분야가 있지만 [33] 이 연구는 이슈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을 연설문에 적용시켜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연설문에 내재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수사학적 접근이 대통령의 연설문에 사용된 주어, 동사의 형태, 구 단위, 단락 단위의 의미 파악 등 언어학적 특성에 주목한 것이라면, 단어의 네트워크 접근은 보가티가 언급했듯이 어떤 속성의 단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밝히고, 단어 간 연결된 유형과 얼마나 자주 함께 등장하는지 상호작용 빈도를 근거로 중심성(centrality)을 파악하는 것이다[34]. 즉 네트워크 내에서 단어의 물리적인 구조 분석을 통해 단어 간 상호작용성을 유형화하여 그래프로 제시하고, 이 네트워크 유형을 근거로 연설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정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대통령 후보자의 연설문이나 담화를 네트워크 분석하는 것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전체 연설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정책이나 정치 철학 등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정 단어의 단일 출현 빈도만 파악하는 내용분석과 달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서는 후보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와 단어의 연결을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를 밝힘으로써 내재된 의미를 알 수 있다[35].

연설문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은 아니지만,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탐배양과 칼레이는 수단의 정치 사건과 관련된 신문기사에 등장한 주요 기관들에 대해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했고, 중심성 분석 결과와 실제 역사적 사건과 비교했다[36]. 중심성 분석에서 중요하게 등장한 기관이 역사적으로도 그 시기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연설문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대통령 후보자들의 연설문, 담화는 단어의 가시성 측면에서 후보자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둘째, 대통령 후보자들의 연설문, 담화는 단어 간 연결성 측면에서 후보자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통해 이 연구는 대통령 후보자가 사용한 언어의 구조적 특징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후보자의 연설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밝힐 것이다.

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대통령 후보자의 언어적 특성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히고, 대통령 후보자의 연설문, 담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설계 하였다.

1.1 분석 대상 시기 및 분석 대상 연설문

대통령 후보자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연설문과 대국민 담화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대통령 후보 등록 전 출마 포기 선언을 했지만, 출마 포기 선언 이후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컸고, 출마 포기 전에는 대통령 후보로서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이미 8월 달에 후보로 선출되어

선거활동을 시작했지만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2012년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대통령 후보자들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설문과 담화 중에서 후보자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설문과 담화 중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경우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다음으로 연구의 분석 기간에서 벗어나더라도 대통령 후보로서 처음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대통령 출마선언문과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후보연설 수락문은 중요성을 고려하여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후보자들이 유세 기간 중 수도권에서 행한 유세 연설문, 방송 연설 등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설문을 후보자별로 10개씩 선택했다[표 1].

표 1. 분석 대상 연설문, 담화

대통령 후보자	연설문 · 담화
박근혜	정치쇄신안 발표문, 출마선언문,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방송연설,
문재인	출마선언, 후보 수락, 후보 집중 유세 연설, 국민연대발대식 인사말,
안철수	안철수입니다(출마 선언 후), 언론사 합동 인터뷰 모두 발언, 노총측사 부산역 연설, 안철수의 약속, 국민에게 드리는 말, 후보 사퇴문, 해단식

1.2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연설문에 사용된 핵심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언어정보나눔터에서 제공하는 언어처리 프로그램인 글잡이Ⅱ를 이용했다[37]. 글잡이 프로그램은 일반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어절 등 연구 목적에 맞게 검색식을 입력해서 통계처리를 할 수 있는 한글 전용 분석 프로그램이다³. 이 연구는 연설문에 사용된 핵심 단어를 파악하고자 했기에 전체 텍스트를 불러오기 해서 음절 단위로 분석하는 음절 통계 분석을

하였다. 주요 키워드로 나타난 단어를 입력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의 가시성과 단어 간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와 단어 간의 연결을 파악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내용분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38].

1.3 단어 네트워크 분석

다음으로 NodeXL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어의 가시성과 단어 간 연결성을 분석하였다[38]. NodeXL 프로그램은 본래 트위터를 모집단으로 해서 이용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39] 이 연구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 간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글잡이Ⅱ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설문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를 분석한 후 이 단어들을 NodeXL 프로그램을 사용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단어 하나는 [그림 1]의 오른쪽 그림에서 점(노드)으로 나타나며, 점과 점을 연결한 선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그림 1].

그림 1. 이용자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예시

1.3.1 단어의 가시성(visibility) 조작적 정의

단어의 가시성은 후보자의 연설문, 담화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의미한다. 대통령 후보자의 연설문에서 언급된 주요 단어의 가시성(visibility) 분석을 통해 단어의 순위를 측정하였다. 즉, 연설문에서 특정 단어가 몇 번 언급되었는지 단어별 빈도를 측정하

3 1998년 국립국어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특정 단어의 출현이나, 빈도와 같은 언어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제시해 주는 용례 추출 프로그램이다.

여 빈도가 많을수록 가시성이 높다고 하였다.

1.3.2 단어의 연결성(connectivity) 조작적 정의

단어의 연결성은 연설문 내에 사용된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중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NodeX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단어의 연결성을 측정하였다. 단어의 연결성은 한 문장에서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을 기본 단위로 하였다. 먼저, 전체 연설문에서 특정 단어가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지 단어 간의 연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한 문장 내에서 함께 사용된 단어들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후보자별로 두 개씩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제시했는데, 중심부에 있는 단어를 클릭해서 가장 많은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전체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 네트워크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결집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단어들 간의 관계에서 다른 단어와의 매개 정도가 가장 높은 중심 단어가 무엇인지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40]4. 중심성 분석은 특정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중심에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노드와 관계를 많이 맺을수록 네트워크 가운데에 위치한다. 중심성 분석에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인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가 있다. 연결 중심성은 특정 노드(node)와 단순히 몇 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지만 고려하므로 영향력 있는 노드와 영향력이 없는 노드를 구별하지 않는다. 연결 중심성이 단순히 연결만 고려한 것이므로 이 연구는 연결

중심성 분석을 하지 않았다. 인접 중심성은 연결 중심성에 의해 파악이 가능한 1촌 연결만으로는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간접적인 연결까지 보여주는 것이다. 매개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네트워크 내의 얼마나 많은 노드들을 매개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인접 중심성과 차이가 있다(Knoke & Yang, 2008). 인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만으로는 특정 노드의 영향력을 밝히기 어렵다. 위세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노드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인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IV. 분석 결과

이 연구는 대통령 후보자의 연설문, 담화에 대한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후보자들이 연설문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어의 가시성과 단어 간 연결성을 중심으로 연설문을 분석하였다. 단어의 가시성은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를 의미하며, 단어 간 연결성은 단어와 단어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 단어의 가시성(visibility) 분석 결과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가시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위 20개의 단어를 추출하였다[표 2]. [표 2]를 보면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을 강조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박 후보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행복을 강조했다. 개혁을 통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불신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해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보통사람, 정의, 기회, 민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일반 유권자를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야당 대통령 후보자로서 정권교체를 강조하였다. 안철수 후보도 정권교체를 강조하는 한편, 변

4 Degree centrality 분석은 두 점(node)의 연결 방향성에 따라 In Degree Centrality 분석과 Out Degree Centrality 분석으로 나누어진다. In Degree Centrality 분석은 다른 점들로부터 하나의 점으로 들어오는(in) 관계만을 고려한 방법이며, Out Degree Centrality 분석은 하나의 점에서 다른 점들로 나가는(out) 관계만을 고려한 방법이다. Betweenness Centrality 분석은 한 점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Degree centrality와 달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 점과 다른 한 점을 연결시키는 점의 매개 정도도 중심성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Closeness Centrality는 한 점이 다른 점에 얼마나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Eigenvector centrality는 네트워크 내에서 어느 한 점(node)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들에 대한 상대적인 점수를 알려준다. 점수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있는 노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화를 통한 새 정치를 내세운 점은 문 후보와 차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삶, 꿈, 행복, 대한민국, 고통, 힘, 공적, 애환, 가족, 불신, 신뢰 순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의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의 가시성을 통해 나타난 정치적 가치는 국민의 고통과 애환, 아픔을 이해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로운 삶과 꿈, 행복을 심어주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 대통령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존경, 국민, 보통사람, 주인, 우리, 정치, 참여, 시민 순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의 연설문을 통해서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치보다는 주인, 동행, 공평, 희망, 정의 등 추상적인 수준의 방향 제시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안철수 후보의 연설문에서는 앞의 두 후보와 다르게 책임감, 부끄러움, 낯은 체제 등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반성이 나타난다. 손, 마음, 책임감, 부끄러움, 정치, 변화, 경제, 대한민국, 바람, 실천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극복, 정치 시스템, 정권교체라는 단어를 통해 국민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새 정치에 대한 약속과 희망, 믿음을 심어 주려는 안 후보의 의지를 알 수 있다. 낯은 정치 시스템과 체제에 대한 개혁을 통해 정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후보와 차별성을 나타낸다.

표 2. 대통령 후보별 주요 단어 목록

후보자	주요 단어
박근혜	국민, 삶, 꿈, 행복, 대한민국, 고통, 힘, 공적, 애환, 가족, 불신, 신뢰, 태러, 은혜, 아픔, 변화, 박근혜, 불안, 일자리, 새로운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 존경, 국민, 보통사람, 주인, 우리, 정치, 참여, 시민, 동행, 기회, 기회, 공평, 정의, 문재인, 삶, 절박, 희망, 상식, 사회
안철수	손, 마음, 책임감, 부끄러움, 정치, 변화, 경제, 대한민국, 바람, 실천, 개혁, 정권교체, 시작, 낯은 체제, 정치개혁, 부패, 안철수, 과거, 극복, 정치시스템

4.2 단어 간 연결성(connectivity) 분석 결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후보자별로 단어 간 연결성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단어 간 연결을

통해 다양한 단어들과 빈번하게 연결된 단어를 중심으로 후보자별로 두 개씩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특정 단어가 어떤 단어와 연결되면서 메시지를 생산하는지 파악하고자 했기에 네트워크 프로그램 상에서 중심부에 위치한 단어를 클릭했을 때 가장 많은 단어들과 연결된 단어를 네트워크에서의 핵심 단어로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박근혜 후보의 경우 ‘국민행복’과 ‘약속’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해 모든 단어 중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볼 수 있다. [그림 2]와 [그림 3]은 동일한 그림을 박 후보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단어와 단어의 연결은 함께 출현한 정도를 나타내며, 중심부에 위치할 경우 그 빈도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특정 단어가 어떤 단어와 연결되어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연설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림 2. 박근혜 후보 연설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민행복 중심

[그림 2]를 보면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일자리, 복지, 국가발전이라는 키워드가 연결되었으며, ‘변화, 새로운’ 발전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민생 안정’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핵심 키워드인 ‘국민행복’과 ‘일자리,’ ‘일자리’와 ‘새로운,’ ‘새로운’과 ‘국민행복’은 서로 삼각형을 이루면서 연결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행복을 추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밖에 국민 행복은 민생, 복지제도, 공동체와 각각 연결되었으나 민생, 복지제도, 공동체 간에는 연결선이 없다. 복지제도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없다.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국민행복과 경제 민주화, 민생안정, 변화가 위치한 것을 통해 박 후보가 복지 분야에 가치를 두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박근혜 후보 연설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 약속 중심

[그림 3]은 ‘약속’ 중심으로 형성된 언어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약속’은 ‘저 박근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정 운영,’ ‘정치 쇄신’과 연결되어 후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국정 운영과 정치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나타내며 ‘정치 쇄신’과 관련된 굳은 의지도 볼 수 있다. 약속은 ‘행복,’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한편 ‘불안,’ ‘테러’와도 각각 연결되어 행복과 미래에 대한 약속과 불안,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약속과 관련된 단어를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가족, 존경, 용기, 사랑, 은혜, 공유 같은 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나타내는 정서’가 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토대로 국민과 함께 나아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약속은 애환, 아픔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어려움은 서민, 고통과 연결되어 있어 ‘서민의 고통’과 관련된 분야가 있다. 다음으로 신뢰, 실천, 투명과 연결되어 ‘약속의 실천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약속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는 동시에 여러 단어들과의 연결 구조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보아 박 후보가 여기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언급된 단어별 매개 중심성위세중심성

주요 단어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국민	3855.255	0.081
국민행복	2109.726	0.029
대한민국	1959.760	0.035
일자리	918.333	0.016
신뢰	887.879	0.027
개혁	715.033	0.013
정부	644.360	0.014
복지	612.167	0.006
불신	497.750	0.017
변화	490.769	0.016
약속	480.552	0.021
박근혜	311.000	0.018
국가발전	246.333	0.010
불안	243.000	0.015
중산층	243.000	0.000
고통	242.000	0.015
어려움	122.000	0.003
아픔	122.000	0.003
길	122.000	0.006
청년	122.000	0.003

[표 3]은 박근혜 후보의 연설문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중심 단어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국민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연결된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국민행복, 대한민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일자리, 신뢰, 개혁, 정부, 복지 순으로 중심성이 높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개혁 의지, 일자리 창출 의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불신, 변화, 약속, 박근혜 라는 단어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근혜의 굳은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국가발전, 불안, 중산층, 고통, 어려움, 아픔 등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

제 상황에 대한 직시와 이해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는 단어로 자주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접 중심성 분석 결과 국민, 대한민국, 국민행복, 일자리, 신뢰, 개혁, 정부, 불신, 박근혜 국가 발전의 중심성이 같게 나타나 이 단어들이 다른 여러 단어와 결합되기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위세 중심성 분석 결과 박근혜 후보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민행복, 신뢰 순으로 나타나 국민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알 수 있다. 중심성 분석을 통해 각 후보자들이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중요시하는 정책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와 [그림 5]는 문재인 후보의 연설문, 담화에 대한 단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다. 문 후보에 대한 연설문 분석에서도 전체 단어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다른 단어와 연결된 단어를 중심으로 두 개의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문 후보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정권교체’와 ‘한반도’로 나타났다. 동일한 그림을 [그림 4]는 ‘정권교체’를 중심으로 단어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4]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정권교체’는 심판, 이명박 대통령과 연결되어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의지를 나타냈고, 정치교체, 시대교체와 연결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권 교체’는 국민경선, 수평적과 연결되어 정권 교체에 대한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그림 4. 문재인 후보 연설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정권 교체 중심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그림 5. 문재인 후보 연설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 한반도 중심

‘정권교체’와 연결된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국민’인데, ‘국민’은 다시 희망, 존경, 승리, 단결, 겸손으로 확장 연결되어 있다. 정권 교체를 통해 승리하고, 존경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국민’은 ‘저 문재인’과 연결되고 ‘저 문재인’은 민주정부, 힐링, 소통과 연결되면서 국민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저 문재인,’ ‘국민,’ ‘우리나라’가 저 문재인과 국민, 국민과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문재인 등 삼각형을 이루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국민은 다시 삶, 새 시대와 연결됨으로써 이 세 주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된다.

[그림 5]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분석한 단어 네트워크 결과를 보여준다. ‘한반도’는 ‘평화,’ ‘대한민국’과 서로 연결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평화는 협력-상생과 연결된 축과 남북-휴전선으로 연결된 축, 북핵 문제로 갈라진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한편, 한반도는 대결, NLL, 긴장과 각각 연결되어 북한과 관련된 복잡한 인식을 전달한다. 북한과 관련되어 한반도는 전쟁, 공동 번영과 연결되어 있고, 전쟁은 공동번영-불안과 연결되어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 공동 번영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한반도, 평화, 대한민국이 위치에 있고, 주변부에는 불안, 긴장, 해방, 전쟁, 휴전선, 대결 등 갈등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위치에 있는 것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는 문재인 후보의 연설문에 등장한 단어에 대한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문 후보의 경우 대한민국, 보통사람이 핵심 단어로서 단어 들 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 중에서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연결된 단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 후보가 서민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재인, 변화, 정의, 국민이 다른 단어와 많이 연결되었고, 정권교체, 한반도, 기회, 민주, 대통령, 우리나라 순으로 나타났다. 인접 중심성 분석 결과 불신, 변화가 연설문에 사용된 다른 단어와의 결합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위세 중심성 분석 결과 국민의 중심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권교체와 우리나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통령, 보통사람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민과 우리나라를 강조하는 한편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생각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언급된 단어별 매개 중심성위세중심성

주요 단어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대한민국	2447.336	0.012
보통사람	2366.248	0.037
문재인	1546.221	0.018
변화	1487.969	0.026
정의	1466.243	0.018
국민	1457.312	0.062
정권교체	1028.000	0.045
한반도	1089.500	0.002
기회	644.983	0.017
민주	589.000	0.003
대통령	565.617	0.039
우리나라	515.043	0.045
선순환	472.000	0.001
희망	416.667	0.016
불신	497.750	0.017
변화	490.769	0.016
약속	480.552	0.021
불안	406.500	0.008
성장	360.000	0.000
국정철학	357.000	0.008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그림 6. 안철수 후보 연설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국민 중심

[그림 6]은 안철수 후보의 연설문, 담화에 나타난 단어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이다. 안 후보의 경우 ‘국민’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가장 중심 부분에 ‘국민’을 중심으로 정치,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안 후보의 정치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다. ‘국민’은 다시 ‘정치’, ‘변화’와 서로 연결되어 기존 정치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전달한다. ‘정치’는 ‘약속’-‘새로운’과 연결되는 한편,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정치’는 반성, 민생, 경제와도 연결되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반성을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안 후보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변화’는 새 시대, 기득권, 새 정치, 국민 참여, 합의와 연결되어 국민 참여를 통해 새 시대, 새 정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다. ‘변화’는 진심, 선택, 삶으로 연결되어 국민의 삶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민’은 ‘대통령’-‘존경’으로 연결되고, 대통령은 ‘대화’-‘따뜻한’과 ‘낮은 곳’으로 연결되어 국민을 존경하고 대화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상을 강조한다.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정치, 국민, 변화가 핵심 단어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부에는 진심, 새시대, 민의, 책임, 삶 등이 위치하여 정치에 새로 입문하는 사람으로서의 각오를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치는 무능과, 변화는 기득권과 국민은 새정치와 연결되

어 연설문에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언급된 단어별 매개 중심성위세중심성

주요 단어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국민	1529.148	0.088
정치	983.048	0.075
변화	809.961	0.073
새정치	689.052	0.036
희망	494.000	0.021
진심	464.675	0.032
정책	437.300	0.029
협력	395.307	0.023
정권교체	302.275	0.008
대통령	271.961	0.025
안철수	261.842	0.012
단일화	219.000	0.005
평화	175.704	0.007
국민제안	158.000	0.005
국민참여	149.750	0.015
기득권	149.000	0.016
정치혁신	149.000	0.001
뜻	148.000	0.018
정치개혁	148.000	0.002
안보	134.039	0.009

[표 5]는 안철수 후보의 연설문에 대한 중심성 분석 결과이다. 매개 중심성은 국민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치, 변화, 새정치가 높았으며, 희망, 진심, 정책, 협력, 정권교체 순으로 나타났다. 인접 중심성은 국민, 정치, 변화가 높았다. 국민, 정치, 변화의 경우 위세 중심성도 높게 나타나 이 세 단어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 철학을 보여주는 핵심 단어로 볼 수 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정치라는 단어를 중시하지 않은 것에 비해 처음 정치에 참여한 안 후보가 정치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은 기성 정치에 대한 차별화를 위한 시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5]는 안철수 후보의 연설문에 대한 중심성 분석 결과이다. 매개 중심성은 국민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치, 변화, 새정치가 높았으며, 희망, 진심, 정책, 협력, 정권교체 순으로 나타났다. 인접 중심성은 국민, 정치, 변화가 높았다. 국민, 정치, 변화의 경우 위세 중심성도 높게 나타나 이 세 단어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 철학을 보여주는 핵심 단어로 볼 수 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정치라는 단어를 중시하지 않은 것에 비해

처음 정치에 참여한 안 후보가 정치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은 기성 정치에 대한 차별화를 위한 시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7]과 [그림 8]은 안 후보의 대통령 후보 사퇴 후 안 후보와 문 후보의 연설문에 대한 단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다. 안 후보와 관련해서는 ‘새 정치,’ ‘정권 교체,’ ‘민주당’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새 정치는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고, 민주당은 쇄신과 변화, 혁신으로 연결되어 안 후보가 민주당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여준다. ‘새 정치’는 안철수와 행동, 과정에 각각 연결되어 자신과 새 정치를 동일시하며,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새 정치’는 단일화-약속으로 연결되어 문 후보와 단일화 약속을 실천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권교체’는 새 정치, 민주당과 연결되어 민주당과 힘을 합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권교체는 열망, 국민과 연결되어 있고, 국민은 다시 상식, 존경, 약속과 연결되어 국민의 열망인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권교체는 백의종군과도 연결되어 후보 사퇴 후 낮은 자리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그림 7. 안철수 후보 연설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단일화 중심

그림 8. 문재인 후보 연설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단일화 중심

[그림 8]은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단어 네트워크이다. 안 후보의 사퇴 후 문 후보의 연설문에서는 ‘단일화’라는 단어 대신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 후보 역시 ‘새 정치,’ ‘정권교체,’ ‘국민연대’와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정권교체를 이루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새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새 정치’는 보은, 실천과 연결되어있고, 새 정치-안 후보-공동선언으로 연결되어 안 후보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새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새 정치’-안 후보-지지-안철수-감사로 연결되어 안 후보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다. ‘새 정치’와 연결된 국민연대는 성공과 연결되어 국민연대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새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세 후보 모두 ‘새 정치’를 강조하였지만, 박근혜 후보는 국민을 중시하는 여성 대통령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다른 두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 정치교체를 강조하면서 민주정부와 새 시대 대통령상을 강조하였다. 박 후보의 경우 민생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문 후보의 경우 시장 경제와 창조적 성장을, 안 후보의 경우 넓은 경제에 대한 경제 개혁을 강조하였다. 이밖에 박 후보는 복지제도를 개선하여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을 늘리는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다.

박 후보는 다른 두 후보와 달리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교육 문제보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한 대외정책을 강조하였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쟁점화 되면서 북핵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였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을 바꾸고, 민의를 반영하는 시스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가 경제를 강조하고, 복지와 교육제도에 중점을 둔 반면, 문 후보는 경제와 대북 문제를, 안 후보는 경제와 시스템 정치를 중요시 하였다.

표 6. 세 후보자의 연설문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비교

중심성 높은 순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1	국민	국민	국민
2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권교체	정치
3	국민행복	대통령	변화
4	신뢰	보통사람	새 정치
5	약속	변화	진심
6	박근혜	약속	정책
7	불신	문재인, 정의	대통령
8	변화, 일자리	불신	협력
9	불안, 고통	희망, 변화	희망
10	정부	대한민국	기득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 후보가 연설문에서 강조한 단어를 비교해 보았다. [표 6]은 중심성 분석 중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 매개 중심성과 위세 중심성을 고려해서 그 값이 높은 순서대로 각 후보가 강조한 단어를 열 개씩 제시한 것이다. [표 6]을 보면 세 후보 모두 연설문에서 ‘국민’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대한민국과 국민행복, 신뢰, 약속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 반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정권교체, 대통령, 보통사람, 변화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을 주장한 반면, 문 후보는 정권교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앞의 두 후보와 달리 정치, 새 정치를 강조하였고,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강조하여 정권교체를 호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 순위에 올라온 단어를 보면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불신을 강조해 현 정치권에 대한 국

민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안 후보는 두 후보와 달리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는 단어 네트워크 분석과 중심성 분석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는지, 단어들 간의 연결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중심성 분석을 통해서 단어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단어가 핵심 역할을 하는지 밝혔고,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파악하였다. 세 후보 모두 국민과 우리나라를 중요시하였고, 안 후보의 경우에는 정치를 강조하였다. 박 후보의 경우 국민행복, 신뢰, 약속을 중시했고, 문 후보의 경우 정권교체와 보통사람을, 안 후보의 경우 정치, 변화, 진심을 강조하는 등 연설문을 통해 세 후보가 강조하려는 가치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추상적인 수준의 단어를 강조하는 것에 그쳐 실질적으로 정치, 사회, 복지, 경제 등 분야별로 어떤 정책을 지향하는지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후보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모두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추상적인 단어들이 위치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드러내는 몇몇 단어들이 주변부에 위치한 것을 통해 후보자들이 연설문에서 유권자에게 정책을 호소하기보다는 국민·국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대통령 후보의 연설문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대통령의 정치 철학,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단서가 된다. 이 연구는 대통령 후보자의 연설문·담화에 주목하고, 단어의 가시성(visibility)과 단어 간 연결성(connectivity)을 중심으로 연설문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5.1 연구결과 요약

대통령 연설문·담화를 구조적 측면에서 단어의 가시성과 연결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설문에 나타난 메시지를 파악하였다. 단어의 가시성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의 경우, 국민, 삶, 꿈, 행복, 대한민국, 고통, 힘, 공적, 애환, 가족, 불신, 신뢰 순으로 가시성이 높아 중산층 복원, 국민 행복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 대통령, 존경, 국민, 보통사람, 주인, 우리, 정치, 참여, 시민 단어의 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통사람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의 경우 손, 마음, 책임감, 부끄러움, 정치, 변화, 경제, 대한민국, 바람, 실천 순으로 가시성이 높아 낯은 정치 체제를 타파하고 시스템 중심의 새 정치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단어 간 연결성을 파악한 결과, 박 후보의 경우 ‘국민행복’과 ‘약속’을 중심으로 다른 단어가 연결되어 있었다. ‘국민행복’은 일자리-복지-국가 발전으로 연결되었고, 민생, 복지제도, 공동체와 각각 연결되었다. ‘약속’은 저 박근혜와 연결되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국정 운영, 정치 쇄신과도 연결되어 강한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문 후보의 경우 ‘정권교체’와 ‘한반도’가 핵심 키워드였다. 정권교체는 심판-이명박 대통령과 연결되었고, ‘국민’과도 연결되어 희망, 존경, 승리로 확장 연결되었다. ‘한반도’는 평화, 대한민국과 연결되었고, 평화는 다시 협력-상생과, 남북-휴전선으로 각각 연결되어 북한과의 협력, 상생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다. 안 후보의 경우 ‘국민’이 핵심 키워드였으며, 국민은 정치, 변화와 연결되어 기존 낯은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변화’는 진심, 선택, 삶으로 연결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국민’은 대통령-존경으로 연결되고, 대통령은 대화-따뜻한 곳과 낯은 곳으로 연결되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상을 강조한다.

연설문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박 후보는 민생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문 후보의 경우 시장 경제와 창조적 성장을, 안 후보의 경우 경제 개혁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복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한 대외정책을 강조하였다.

5.2 연구의 결론 및 제언

대통령 후보자의 언어는 후보자의 정치 철학, 정책, 국민에 대한 생각 등 국민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41].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정보원으로서 대통령 후보자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며, 이들의 사회·정치적 지위로 인해 대통령이 한 말의 정치적 의미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국민들은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이나 후보자의 연설을 통해 그들의 생각, 행동, 정치적 방향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담화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치적 가치를 찾는 것은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 간 관련성을 찾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의 연설문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었다. 질적 연구 중심으로 행해져온 정치 담론 분석을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양적 접근을 통해 연설문에 내재된 메시지를 밝힘으로써 방법론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기여하였다.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 단어의 가시성 분석뿐만 아니라 특정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단어 네트워크 분석과 연설문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후보자의 연설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보자별로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박 후보의 경우 국민행복과 약속이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했고, 다른 단어와의 매개 정도도 높게 나타나 최우선적으로 국민에게 한 ‘약속’과 ‘행복’을 중요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설문에 대한 단어 분석을 통해 평소 박 후보가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청사 세종시 이전을 관철시킨 것이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당명과 색깔을 바꾸고 개혁하겠다는 약속

을 지킨 것 등 평소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이 드러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 후보의 경우 ‘국민’ 외에 ‘정권교체’, ‘한반도’가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있어 집권당 후보인 박 후보와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교체’의 경우 선거 당시 유권자들이 문 후보에게 강점이 있다고 판단한 내용이다. 문 후보가 한반도를 강조한 이유는 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NNL 대화록이 쟁점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연설문을 통해 야당 후보로서 대북관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안 후보의 경우 정치에 막 입문한 후보로서 ‘국민’과 ‘변화’를 강조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밝혀진 각 후보의 핵심 키워드는 후보자들이 평소 언론에서 강조하고, 유권자에 의해 후보자에게 강점이 있는 것으로 단어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연구 결과가 의미 있다고 하겠다. ‘국민’은 변화와 연결되고, 변화는 다시 새 시대, 새 정치, 국민 참여, 합의와 연결되어 기존 정치와 다른 정치를 하겠다는 안 후보의 의지가 연설문에 강하게 드러났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연설문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추상적 수준의 선포, 선언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행복, 보통사람, 국민, 변화 등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주장을 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연설문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박 후보의 경우 청년, 일자리, 고통, 복지의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복지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의 경우 중심 단어 중에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한반도, 성장 정도인데, 당시>NNL 논란이 커지자 한반도를 언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성장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안 후보의 경우 다른 두 후보와 달리 정치혁신, 정치개혁, 새 정치 등 정치를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문 후보의 경우 '정권교체'라는 목표만 부각되고, 정권교체를 위해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집중한 나머지 박 후보에 비해 복지 정책이나 서민들의 삶을 좋게 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연설문의 주요 키워드가 정권교체와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한 한반도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이에 비해 안 후보의 경우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새 정치, 혁신 등 목표 지향적이지만, 역시 목표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다만, 안 후보의 경우 국민을 변화를 이끌 주체로 생각한다는 것이 문 후보와의 차이점이다. 반면 박 후보는 두 후보에 비해 보다 국민의 삶에 와 닿는,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고,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후보자의 연설문을 분석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함으로써 이론적 측면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선거에서 유권자를 향한 연설문이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단어 네트워크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선거 기사를 쓰는 저널리스트에게나 후보자의 선거 전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단어의 가시성과 단어 간 연결성을 분석하였는데,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사학적 측면의 분석도 필요하다고 본다. 후보자가 스스로를 지칭하는 주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어떤 어미를 사용하는지, 자주 사용하는 문장 형태는 무엇인지, 능동태를 많이 사용하는지 아니면 수동태를 많이 사용하는지와 같은 후보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파악한다면 정책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리더십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유권자에 대한 호칭, 유권자와 후보자의 관계 설정을 통해 추종자를 존중하는지, 대등하게 생각하는지를 밝힘으로써 리더십 스타일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후보자의 연설문에 언급된 단어의 가시성 분석과 단어 간 연결성 분석을 토대로 연설문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였다. 정치인의 연설문은 여러 정치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임을 고려한다면, 단어의 가시성이나 단어 간 연결 분석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 사건까지 함께 연구해 보다 깊은 의미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대통령 후보자의 연설문, 담화를 분석 대상으로 했지만 이 기간 중 발생한 주요 사건을 반영하여 연설문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호관계를 분석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주제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지만 향후 안철수 후보의 출마 전·후나 단일화 사퇴 전·후 등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해 분석 한다면 평상시, 위기 시 대통령 후보자들이 연설문을 통해 어떤 점을 강조하는지, 유권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연설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어떤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다른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의미론적 분석에서 찾아내는 연설문에 내재된 가치, 정책 지향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단어 네트워크 분석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설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 선택된 단어의 의미 등을 질적 접근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C. Pu, "Discourse Analysis of President Bush's Speech at Tsinghua Universit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Vol.XVI(1), pp.205-216, 2007.
- [2] C. Schäffner, "Editorial: Political speeches and discourse analysis," *Language and Society*, Vol.3, No.3, pp.201-204, 1996.
- [3] J. Masciulli, M. A. Molchanov, and A. Knight, "Political Leadership in Context,"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Political Leadership*, pp.1-25, 2009.

- [4] 김은정, 강태완,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난 수사적 특징과 역할규정”, 학술발표자료 학술행사 2004년 가을학술대회, 2004.
- [5] 강정인, 하상복, “박정희의 정치사상 :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1호, pp.181-215, 2011.
- [6] 이귀혜, 강남준, 이종영, “탄핵 시기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학 연구 : 컴퓨터 언어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2호, 제5권, pp.25-55, 2008.
- [7] 박성희, “제17대 대통령 후보 합동 토론회 언어네트워크 분석 - 북한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45호, pp.220-254, 2009.
- [8] 이창길, “정권 초기의 가치지향과 정책우선순위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언어네트워크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3호, pp.165-189, 2010.
- [9] P. Chilton and C. Schäffner, “Discourse and Politics,” In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van Dijk, T. A.(ed.), pp.206-230, London: Sage.
- [10] 이귀혜, 강남준, 이종영, “탄핵 시기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학 연구 : 컴퓨터 언어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2호, 제5권, pp.25-55, 2008.
- [11] P. Chilton and C. Schäffner, “Discourse and Politics,” In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van Dijk, T. A.(ed.), pp.206-230, London: Sage.
- [12] C. Pu, “Discourse Analysis of President Bush’s Speech at Tsinghua Universit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Vol.XVI, No.1, pp.205-216, 2007.
- [13] 강정인, 하상복, “박정희의 정치사상 :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1호, pp.181-215, 2011.
- [14] C. Schäffner, “Editorial: Political speeches and discourse analysis,” *Language and Society*, Vol.3, No.3, pp.201-204, 1996.
- [15] M. Edelman, *Constructing the Political Spectacl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16] C. Pu, “Discourse Analysis of President Bush’s Speech at Tsinghua Universit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Vol.XVI, No.1, pp.205-216, 2007.
- [17] 권향원, 최도립,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 전략에 대한 연구: 역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 pp.285-320, 2013.
- [18] P. Chilton and C. Schäffner, “Discourse and Politics,” In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van Dijk, T. A.(ed.), pp.206-230, London: Sage.
- [19] H. W. Park, “Mapping election campaigns through negative entropy: Triple and Quadruple Helix approach to South Korea’s 2012 presidential election,” *Scientometrics*, Vol.99, pp.187-197, 2014.
- [20] 홍주현, “트위터를 통한 이슈의 확산 네트워크 연구: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의 이슈 소유권(issue ownership)과 이슈 확산 네트워크의 관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0권, 제2호, pp.351-400, 2013.
- [21] G. Ereteo, F. Gandon, and B. Michke, “Semantic Social Network Analysis,” 2007.
- [22] M. Steyvers and J. B. Tenenbaum, “The Large-Scale Structure of Semantic Networks: Statistical Analyses and a Model of Semantic Growth,” *Cognitive Science*, Vol.29, pp.41-78, 2005.
- [23] U. Serdūt and C. Hirschi, “Network Analysis in Political Science,” *ASNA 2011 Workshop: Applications of Social Network Analysis*, 2011.
- [24] F. Fico, “The Ultimate Spokesman Revisited: Media Visibility of State Lawmaker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61, No.2, pp.383-391, 1984.
- L. Trimble, “Gender, Political Leadership and Media Visibility: Globe and Mail Coverage of

- Conservative Party of Canada Leadership Contest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0, No.4, pp.969-993.
- [25] P. A. Gloor and Y. Zhao, “Analyzing Actors and Their Discussion Topics by Semantic Social Network Analysis,” *Proceedings of the Information Visualization(IV’ 06)*, IEEE, 2006.
- [26] L. C. Freeman, “Centrality in networks: I.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pp.215-239, 1979.
- [27] O. Green, R. McColl, and A. D. Bader, “A Fast Algorithm for Streaming Betweenness Centrality,” 2012.
- [28] P. A. loor and Y. Zhao, “Analyzing Actors and Their Discussion Topics by Semantic Social Network Analysis,” *Proceedings of the Information Visualization(IV’ 06)*, IEEE, 2006.
- [29] 박한우, 이연옥, “복합적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포털 댓글에 관한 연구 -17대 대통령 선거 기간 미디어 ‘다음’에 게시된 광운대 BBK 동영상”,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 11권, 제2호, pp.737-744, 2009.
- [30] A. Pak and P. Paroubek, “Twitter as a Corpus for Sentiment Analysis and Opinion Mining,” *Proceedings of LREC*, 2010.
- [31] 김준식, 박찬훈, 이은석, 장병탁, “하이퍼네트워크에서 본 단어간 긴밀성과 다양성”, *정보과학회 논문지: 시스템 및 이론*, 제35권, 제4호, pp.166-171, 2008.
- [32] D. Knoke and S. Yang, *Social Network Analysis*, Sage Publications India Pvt. Ltd. 2008.
- [33] F. I. Greenstein, “Presidential Difference in the Early Republic: The Highly Disparate Leadership Styles of Washington, Adams, and Jeffers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36, No.3, pp.373-392, 2006.
- [34] S. P. Borgatti, “Centrality and network flow,” *Social Networks*, Vol.27, pp.55-71, 2005.
- [35] C. W. Chung and H. W. Park, “Textual Analysis of a Political Message: The Inaugural Addresses of Two Korean Presidents,” *Social Science Information*, Vol.49, pp.215-239, 2010.
- [36] L. Tambayang and K. M. Carley, “Network Text Anlysis in Computer-Intensive Rapid Ethnography Retrieval: An Example from Political Network of Sudan,” *Journal of Social Structure*, Vol.13, 2013.
- [37] <http://ithub.korean.go.kr/user/corpus/programView.do>
- [38] <http://nodexl.codeplex.com/>
- [39] <http://www.slideshare.net/hanpark/node-xl-korean1>
- [40] 박한우, 남인용, “인터넷 연구의 새로운 방법: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4권, 제2호, pp.69-100, 2004.
- [41] P. Chilton and C. Schäffner, “Discourse and Politics,” In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van Dijk, T. A.(ed.), pp.206-230, London: Sage.

저 자 소 개

홍 주 현(Ju-Hyun Hong)

정희원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사)
 - 199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석사)
 - 2009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언론학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2월 : 베이징대 신문방송학과 연구학자
 - 2013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조교수(강의전담)
- <관심분야> : 인터넷 여론, SNS, 네트워크 분석

윤 해 진(Hae-Jin Yun)

정회원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사)
- 199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문학석사)
- 1998년 12월 : Syracuse University, S.I. Newhouse School of Public Communications(M.S.)
- 2006년 5월 :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Communication Arts and Sciences(Ph.D.)
- 2008년 9월 ~ 현재 : MBC 편성국 전문연구위원
<관심분야> : 소셜미디어, 시청자 분석과 편성, 다중 매체이용, 인터넷 매개 커뮤니케이션